



Analyst 윤혁진 · 02-3773-9025 · hjoon2019@sks.co.kr

Issue Comment

- ✓ 1Q22 매출액 4.34 조원, 영업이익 2,589 억원, OPM 6.0% 기록
- ✓ 매출액은 컨센 수준, 영업이익 서프라이즈(컨센 OPM 3.71%)
- ✓ 글로벌 EV 향 매출 호조, 환율, 수율개선이 이익률 개선의 핵심

LG 에너지솔루션 1Q22 잠정실적: 놀라운 수익 방어력을 보여준 실적

- LG 에너지솔루션 1Q22 잠정실적 발표: 매출액 4.34 조원(-2.2%QoQ, +2.1%YoY), 영업이익 2,589 억원(+242.0%QoQ, -24.1%YoY)으로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 4.41 조원, 영업이익 1,639 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익성을 기록
- 주 고객사 배터리 리콜물량 생산과 메탈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 있었지만, 호실적 기록
- 글로벌 EV 향 매출 호조: 소형전지 주 고객사인 글로벌 EV 의 출하량은 1 분기에 31 만대로, 4 분기 30.8 만대 대비 소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 1 분기 18.5 만대 대비 68% 증가하며, 동사의 소형전지 매출성장을 견인. 글로벌 EV 업체의 2 분기 판매량도 1 분기대비 1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, 베를린, 텍사스 공장이 가동되면서 동사의 2 분기 소형전지 매출액도 10% 이상 증가가 가능할 전망
- 수율 개선: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주력 공장인 폴란드 공장의 수율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, 전사적으로 최적의 수율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환율 효과: 4Q21 원달러 평균 환율은 1,183 원에서 1Q22 1,205 원으로 1.9% 상승. 수출이 대부분인 매출 구조상 원/달러 환율 상승은 이익률 개선 요인
- 4 월 마지막주 실적발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, 2Q22 이익은 소폭 증가, 이익률은 중대형 비중 증가로 소폭 하락 예상됨. 최근 급등한 메탈 원가 부담은 2 분기가 더 부담되는 상황이지만, 2 분기에도 주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 호조, 수율개선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됨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